

since 2001 www.beautis.co.kr  
**대한민국 2% 피부과전문가가 진료하는**  
**뷰티스맑은피부과**  
 BEAUTIS MALKOON DERMATOLOGY CLINIC  
 (062) 385-7575 광주광역시 삼정구  
 대림사거리 11동 11층

# 광남일보

대량광 발전산업의 리더!! 기업선용도 AO(NICE) 평가  
**i탑인프라**  
 1800-6069  
 2018년 10월 11일(목) 09:00 ~ 10:00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69 www.itopinfra.co.kr

 <p>신안군, 태풍 롱레이 피해 복구 '구슬땀' 박우량 군수, 김 양식 어가서 대책 등 설명</p>	 <p>“우수 중소기업 제품 애용합시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회원사 홍보</p>	 <p>에어필립 임업석 회장 ‘경제리더 대상’ 전원 정규직 채용 등 일자리 창출 기여</p>	 <p>“평생 봉사 실천하며 치열한 예술정신 발현” 팔순 맞아 결산전 여는 원로 김재형 화가</p>
---	---	--	--

조간 제621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음력9월3일)

## 인구 소멸 심각... 전남 섬을 살리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가 전남 섬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마을 구성조차 힘든 섬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주민이 떠나 유인도가 무인도로 변한 곳도 늘고 있다. 특히 전남 섬 지역은 서남해 국가 영토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 특성상 장기적으로 무인도가 계속 늘어날 경우 해상주권 상실과 영토 축소까지 우려되고 있어 섬 주민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전남 섬들이 마을 구성조차 힘들어 상당수 지역 섬들이 소멸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은 신안 도초면 전경.

### 10인 미만 유인도 25곳 50년 내 무인화 “정주여건 개선 등 정부 주도 대책 절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전국 471개의 유인도 중 59%인 277개의 유인도가 전남에 위치하고 있다. 전남 지역의 섬들 가운데 인구가 500명 이상 되는 곳은 극소수에 그치고 절반 가까이 거주 인구가 50명도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인 미만의 섬도 41곳이나 되는 등 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발표한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섬 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 유인도서 인구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18만296명이던 섬 지역 인구가 20년 후인 2036년에는 14만4618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66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 9만3692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현재 10인 미만의 섬 가운데 향후 50년 내에 인구소멸이 예상되는 곳이 무려 25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진도군이 갈목도, 성삼남도, 송도, 양덕도, 주지도, 죽도 등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시 4곳(금죽도, 수항도, 아도, 추도), 영광군 4곳(대각시도, 소각시도, 죽도, 횡도), 완도군 4곳(모황도, 양도, 죽죽도, 초완도), 신안군 3곳(외안도, 요령

도, 울도), 고흥군 2곳(대옥대도, 침도), 무안군 1곳(탑섬), 해남군 1곳(시하도) 등이 다. 이 기간 육지와 섬의 인구 감소를 전망치를 보더라도 섬 소멸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우려스럽다. 보성군의 경우 육지 인구감소율이 46.8%인 반면 도서 지역은 60.6%에 달하고, 장흥군도 육지 53.4%, 섬 64.7%의 감소율이 각각 예상되는 등 전남지역 섬 인구 소멸 속도가 매우 빠르다. 문제의 심각성은 섬에 주소지만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섬 소멸이 이 같은 연구결과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 초완도의 경우 최근 2가구에서 1가구로 줄었고, 이마저도 섬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 이보다 사정이 나은 여수시 광도의 경우도 10여 명 되는 주민들이 모두 여수 시내에서 오고 가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등 유인도로 조사되는 섬 중에 현재 무인도인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처럼 섬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섬 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지자체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섬 소멸은 단순히 지역소멸 차원이 아닌 해양주권과 영토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지자체가 아닌 중앙 정부가 나서서 섬의 무인화 방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권철 동산대 교수는 “섬 지역은 부속도서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의 중요 부분이다”며 “섬에 대해 관광 차원의 접근이 아닌 생존과 미래산업의 근간, 영토수호 등 정부 주도하는 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알림**  
 광남일보 경제인 **2017 제6회 중소기업경영인대상** 수상자 프로젝트  
 \* 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

**2018 제7회 중소기업경영인대상**  
 선진경영·고용창출 등 6개 부문... 11월 9일 마감

광주·전남 경제특화 종합일간지 광남일보는 경영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중소기업경영인대상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기법과 차별화된 마인드로 한 해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기업과 경영인을 공모합니다. 공모부문은 △선진경영 △고용창출 △기술혁신 △수출증대 △친환경 경영 △여성·청년CEO 등 모두 6개 부문입니다. 우수 중소기업과 경영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대상 : 중소기업경영인 누구나  
 △ 공모기간 : 2018년 10월8일(월) ~ 11월9일(금) 오후 5시까지  
 △ 심사발표 : 2018년 11월16일(금) 광남일보 지면  
 △ 접수방법 : 광남일보 홈페이지 (www.gwangnam.co.kr) 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gn7000@gwangnam.co.kr) 접수  
 △ 시상내용 : 국회의원상, 광주시장상, 전남도지사상 등  
 △ 시상식 : 2018년 11월22일(목) 14:00 /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광남일보·전라도인, 광주경영자총협회, 전남경영자총협회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조달청  
 △ 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 062-370-7090)  
 \* 위 내용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남 도정 활력... 현안사업 돌파구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 취임 100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겠다는 일념 아래 도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지사는 이날 도정 브리핑룸에서 ‘민선 7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 동안은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각계각

층의 도민과 함께 지역발전전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도민이 쌓아 놓은 성과와 토대 위에서 민선 7기 도정시책이 도민의 삶과 함께 아우러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변영시대,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체감형 행복시책 강화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좋은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집중 육

**행복시대**  
 10일 도청에서 민선 7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는 광주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고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현수 기자 press2020@gwangnam.co.kr

## 내년 광주수영대회 北 참가 ‘청신호’

도종환 장관, 국감서 “북측에 참석 공식 요청” 밝혀  
 정부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를 북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광주수영선수권대회 등의 국제대회에 참석해달라고 북측 김일국 체육장에게 얘기를 했고, 북측에서 날짜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북측에선 그쪽에서 하는 타구, 역대 대회에 남쪽 선수들이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체육실무회담과 장관 회담을 수시로 개최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도 장관은 또 “전국체전 100주년 되는 해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북측 얘기를 했다”며 “북측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북측에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제안한 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IOC 부위원장과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터뷰 내용을 봤다”고 답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든든한 성공파트너 월드아이**  
 FULL COLOR LED전광판  
 LED전광판광고대행사 (주)월드아이 광고문의 062)521-7779  
 광주 /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 / 전주 / 제주 / 목포 / 창원 / 천안 LED전광판 광고